

Sinopec, 리춘광 총재 신규선임



중국 Sinopec 신임 총재에 리춘광(李春光·57) 이사가 선임됐다.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Sinopec은 5월29일 제5기 이사회 8차 회의를 열어 리춘광 이사를 총재로 선임했으며 푸청위(傅成玉) 이사장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리춘광 신임 총재는 왕톈푸(王天普) 총재의 뒤를 이어 2015년 5월까지 총재직을 수행하며, 왕톈푸 전 총재는 Sinopec 그룹 사장을 맡게 된다.

리춘광 총재는 2002년 Sinopec 판매공사 이사장, 2003년 Sinopec 부총재, 2005년 Sinopec 그룹 부사장 등을 거쳐 2009년 5월부터 Sinopec 이사로 일해 왔다.

<화학저널 2013/05/30>